

대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부모와의 갈등과 주관적 웰빙: 원한 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 경 순[‡]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부모와의 갈등이 주관적 웰빙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그 관계를 원한 동기가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남녀 대학생 273명 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만 17세에서 41세 사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검사는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 부모-자녀 갈등경험검사, TRIM 척도, Diener 등의 삶의 만족 척도, 정서빈도검사, Lyubomirsky와 Lepper의 주관적 행복 척도이다. 상관분석 결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와의 갈등 모두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과 부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는데, 대인관계 스트레스보다 부모와의 갈등이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설명력이 강했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와의 갈등은 원한 동기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부모와의 갈등보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원한 동기와 더 많은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다. 원한 동기는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과도 부적 상관이 있었고,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부모와의 갈등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원한 동기는 그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나 부모와의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한 대학생이 마음속에 원한을 품을 경우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원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용서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대인관계 스트레스, 부모와의 갈등, 원한, 주관적 웰빙

[†] 이 논문은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경순, (139-742)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전화: 02) 3399-1590 E-mail: leeks@syu.ac.kr

스트레스는 인간의 삶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 상황은 분노,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를 경험하게 하여 개인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든다(박준호, 2009). 부정 정서의 경험이 정신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실증연구들(박경, 2010; 서경현, 이경순, 2010; Brown & Harris, 1989; Dohrenwend & Dohrenwend, 1981; Kessler & Magee, 1993)을 통해서 검증되었다. Ng, Diener, Aurora 및 Harter(2009)도 스트레스가 개인의 웰빙 수준을 감소시키는 혐오적인 정서 상태를 유발하는 것 자체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트레스를 정동적 웰빙의 부정적 차원으로 묘사하였다. Zubin과 Spring(1977)은 정신장애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정신적 문제에 대한 취약성을 가진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정신장애를 얻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들을 종합하면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부정 정서를 느끼게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스트레스 중에서도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개인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상심리학자인 Powell(1987)은 심리치료를 하다보면 환자가 초기에 불안, 공포, 우울, 불안, 삶의 의욕 저하 등 여러 증상들을 호소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대인관계에서 겪은 스트레스나 인간관계의 부재를 상담하게 된다고 토로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 게다가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이 중국에는 관상성 심장질환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여 조기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Lynch, 1979).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

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의 주요 요인이 된다(Joiner & Metalsky, 1995). 따라서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웰빙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대부분이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것을 보면(Horowitz, Rosenberg, Baer, Ureno, & Villasenor, 1988), 그런 논리가 타당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은 실증연구로도 검증되었는데, 예를 들어 우울증의 발병이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yne, 1999). 박경(2003)의 연구에서도 우울에 대한 설명력이 생활스트레스(6.5%)보다 대인관계의 문제(29.1%)가 훨씬 더 강했다.

대인관계 중에서도 부모와의 갈등이 청소년기 혹은 초기 성인기에 있는 사람의 정신건강이나 웰빙을 위협할 수 있다. 부모와의 갈등이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졌다(박영신, 김의철, 2004; Burt, Krueger, & McGue, 2003; 오영희, 2004에서 재인용). 그리고 특히 부모-자녀의 관계가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에서 그 역동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0). 이와 관련하여 최상진(2000)은 한국에서의 부모-자녀 관계가 자애와 효를 바탕으로 한 심심심리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동일체적 관계라고 설명하였다. 오영희(2004)는 이런 문화에서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이나 애정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은 분노나 증오와 같은 부정 정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부모와의 갈등에는 다툼, 의견 불일치, 논쟁과

같은 외현적인 것으로부터 경쟁, 공격 의도, 말 끊기, 개인 내적 심리적 동요까지 포함될 수 있다 (Laursen, Coy, & Collins, 1998). 물론 갈등이 부정적인 결과를 내는 것만은 아니다. 건설적인 갈등도 있다(Shanz, 1987: 오영희, 2004에서 재인용). 그런데 목적상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갈등 중에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려고 한다. 부모로부터의 받은 부당한 대우에 근거하여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갈등은 오영희(2004)의 연구에서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폭력, 부모의 무시나 불신 혹은 실망, 다른 형제와의 차별, 부모의 관심이나 이해의 부족, 경제적인 무책임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거로 그녀는 부모-자녀 갈등경험검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갈등을 부모로부터의 받은 부당한 대우의 지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사람이 살다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그런 피해를 당하면 분노하게 되고 상대가 그런 부당한 처사에 대한 대가를 치렀으면 하는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강해지면 보복 혹은 복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정성진, 2011), 그것이 공격적 복수 행위나 수동적 회피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한 질적 연구(이경순, 2002)에서는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한의 감정으로 증오심, 수치심, 보복심,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이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입으면 분노와 공포 등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데, Worthington(2006)은 부정, 선택적 지각을 통한 자기정당화, 반추와 같은 인지적 반응은 물론 공격 행동, 후퇴나 굴복, 복수, 자기방어와 같은 행동적 반응에도 주목하였

다. 오영희(2006)도 대인관계에서의 상처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녀는 인지적 영향으로 세상이나 타인에 대한 인식 변화, 자신에 대한 인식 변화, 사고 장애 및 주의집중 곤란을, 정서적 영향으로 분노, 배신감, 우울, 억울함 및 불안, 행동적 영향으로 관계 악화, 일상생활 장애, 회피 등을 꼽았다.

타인에게 가지는 원한은 정서적 측면이 강하다. 그 핵심에 분노가 있다고 보는 학자(Enright, 2004)도 있고, 미움이나 증오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경순, 2008; Arnold, 1997)도 있다. 분노나 증오 외에도 적대감이나 불안 등도 원한의 감정인데, 이런 감정은 상처 받은 것을 채차 떠올리는 반추 반응에 의해 발견되거나 증폭된다(Worthington, 2006). 그리고 그렇게 증폭된 감정들은 공격 행동, 즉 복수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전적 정의(이희승, 1994: 오영희, 1995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원한(怨恨)은 “원통하고 한이 되는 생각”으로 줄인다면 원(怨)이다. 흔히 한(恨)으로 표현되는 한탄은 같은 사전에서 “원통한 일이나 뉘우침이 있을 때 한숨짓는 탄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정의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원한은 恨보다 怨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새국어사전(두산동아편집부, 2008)에는 원한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웅어리진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희승의 정의보다 이것에 가깝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원한은 용서의 반대개념이다. 다시 말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가해자를 아직 용서하지 않은 상태이다. Enright 등(Enright & The Human Development Group, 1991)은 용서를 “개인적으로 심연의 부당한 상처

를 준 상대에게 갖는 부정적인 정서, 사고, 행동 반응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 정서, 사고, 행동 반응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Thompson과 Snyder(2003)는 용서를 가해자와 가해행동 및 가해행동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중립적 혹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McCullough(2000)는 가해자에 대한 복수 동기와 회피 동기의 감소와 친사회적 동기의 증가를 용서로 보았다. 본 연구자들은 McCullough의 견해를 기반으로 원한을 동기의 개념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동기가 아닌 가해자에 대한 복수 혹은 회피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원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개인에게 있어서 용서가 정신적 건강은 물론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박중호, 2003). 이런 가설은 여러 실증연구들을 통하여 검증이 시도되었다(Enright & Fritzgibbons, 2002). 용서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에게 건강상 유익이 된다는 논리는 용서하지 못한 상태, 즉 원한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개인의 건강이나 웰빙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것이다. 일찍이 Buscaglia(1984)는 자신에게 부당한 처사를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끝없이 미워하고 원한의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가해한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어떤 학자(McCullough, 2000)는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지게 되는 적대감이나 분노와 같은 정서가 개인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설명하고, 어떤 학자(박중호, 2003)는 용서와 건강 간의 관계를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생

리적 스트레스 반응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용서하지 못한 상태, 즉 원한의 동기가 개인에게 어떻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이 개인의 웰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을 때 원한을 가지면 개인의 웰빙 수준이 낮아지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웰빙은 기능적인 면을 중시하는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과 삶의 만족이나 행복으로 대변되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으로 구분되는데(Ryan & Deci, 2001),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웰빙을 다루려고 한다. 용서하지 못한 상태가 분노,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웰빙의 변인들과 상관이 있다는 것(McCullough, 2000; Palamattathil, 2002)이 이미 여러 번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Diener, Suh, Lucas와 Smith(1999)은 주관적 웰빙 변인으로 삶의 만족,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꼽았다.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부정 정서는 덜 경험하면서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주관적 웰빙은 행복감이라 할 수 있다(김정호, 2007). 본 연구에서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삶의 만족 수준과 긍정 정서, 그리고 행복감 수준을 합하고 부정 정서를 제한값으로 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부모와의 갈등이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관계에서 원한 동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

려고 한다. 첫째,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부모와의 갈등이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과 관계가 있는가? 둘째,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부모와의 갈등과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원한 동기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이런 연구문제를 검증함으로써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부모와의 갈등이 대학생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후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원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주관적 웰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여 용서를 임상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방 법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273명(남학생 141명, 여학생 1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만 17세에서 41세($M=20.56$, $SD=2.60$)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참여자들 중에 1학년이 125명(45.8%), 2학년이 74명(27.1%), 3학년이 41명(15.0%), 그리고 4학년이 33명(12.1%)이었다. 이들 중에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75명(27.5%)이었고, 132명(48.4%)이 개신교(기독교), 38명(13.9%)이 천주교, 13명이 불교(4.8%)를 믿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10명(3.7%)은 그 외의 종교를 믿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5명(1.8%)은 자신의 종교를 밝히지 않았다.

참여자들이 설문을 응답하기 전에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고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이들에게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자율적 의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렸다. 본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18.0에 의해 실행되었고, 주요 통계분석은 적률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이었다.

조사 도구

대인관계 스트레스: 전경구, 김교현 및 이준석(2000)이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참여자들이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개방형 질문지로 대학생이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파악한 후 문항이 제작되었다. 본래 이 척도는 50문항 8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목적상 대인관계 스트레스 요인인 이성과의 관계(6 문항), 교수와의 관계(6 문항), 가족과의 관계(7 문항)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5 문항)에서의 스트레스만을 사용하였고, 경제 문제, 장래 문제, 가치관 문제 및 학업 문제 스트레스는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각 문항은 3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참여자가 지난 1년, 즉 12개월 동안 경험한 사건을 0--'전혀', 1--'보통', 2--'자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전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92이었고, 이성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88, 교수와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82, 가족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86, 친구와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84였다.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부당한 대우에 의한 갈등 경험은 오영희(2004)가 개발한 부모-자녀 갈등 경험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특히 부모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피검자의 인식을 측정하는데, 문항의 예로는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무시하였다”, “어머니(아버지)는 나보다 다른 형제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때리거나 공격하였다” 등이 있으며,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이해하였다” 등과 같은 긍정 문항(역환산 문항)도 있다. 이 검사는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에 대한 16문항씩을 4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어머니와의 갈등 경험 .70, 아버지와의 갈등 경험 .76이었다.

원한 동기: 참여자들이 타인에게 가지고 있는 원한 동기는 McCullough 등(1998)이 개발한 TRIM(Transgression 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척도를 정성진(201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에게 잘못된 가해자와 개인적, 심리적 접촉을 회피하는 동기(회피 동기)와 가해자에게 복수하거나 그에게 불행을 닥치는 것을 보고자 하는 동기(복수 동기)를 측정한다. 이 척도는 특정 가해에 대한 반추, 가해자에 대한 공감, 가해자와의 친밀도 및 관계 만족도 등과 같은 변인들과 높은 수렴타당도를 보였다. 12문항을 4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회피 동기 .93, 복수 동기 .90, 그리고 전체 척도는 .94였다.

부정/긍정 정서: 조명한과 차경호(1998)의 정

서빈도검사를 사용하여 참여자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부정 정서와 긍정 정서를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지난 1개월 동안 부정 정서와 긍정 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7점으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피검자는 각각 네 가지의 부정 정서와 긍정 정서를 평정하는데 부정 정서는 공포, 화남, 슬픔 및 죄의식이고, 긍정 정서는 애정, 기쁨, 만족감 및 자부심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부정 정서 .70, 긍정 정서 .76이었다.

삶의 만족: 참여자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수준은 Diener, Emmons, Larsen와 Griffin(1985)의 삶의 만족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김정호(2007)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체로 나의 삶은 나의 이상(ideal)에 가깝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등과 같은 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수준은 .89였다.

주관적 행복: 참여자가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은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주관적 행복 척도(SHS: Subjective Happiness Scale)를 김정호(2007)가 번안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피검자 자신의 행복 상태와 관련하여 진술되어 있는 4문항을 7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피검자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지, 주변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신이 더 혹은 덜 행복한지 등을 평정한다. 한 문항은 역환산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수준은 .77이었다.

결 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부모와의 갈등, 원한 동기 및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와의 갈등 및 원한 동기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상관분석에서 원한 동기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부모와의 갈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원한 동기는 부모와의 갈등($r=.27, p<.001$)보다 대인관계 스트레스($r=.41, p<.001$)와 더 많은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다. 한편 대인관계 스트레스 하위변인인 이성친구, 교수, 가족 및 친구와의 스트레스 모두 원한 동기와 상관이 있었으며,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와의 갈등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원한 동기는 주관적 웰빙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r=-.27, p<.001$. 원한 동기는 부정 정서와는

정적 상관이 긍정 정서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삶의 만족과도 부적 상관이 있었다. 하지만 원한 동기는 삶의 만족과는 공유하는 변량이 적었고($r=-.12, p<.05$), 회피 동기나 복수 동기로 구분하였을 때는 삶의 만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생이 타인에게 가지는 원한 동기는 행복감과는 약 12%가량의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다.

대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주관적 웰빙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r=-.31, p<.001$. 대인관계 스트레스 하위변인인, 이성친구, 교수, 가족 및 친구와의 스트레스 모두 주관적 웰빙과 상관이 있었으며, 가족과의 스트레스가 주관적 웰빙과 가장 많은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다, $r=-.34, p<.001$.

가족 중에서도 부모와 갈등이 있으면 웰빙 수준이 떨어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그런 논리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대학생이 경험하는 부모와의 갈등은 주관적 웰빙과 매우 밀접한 관

표 1. 대인관계 스트레스, 부모와의 갈등, 원한 동기 및 주관적 웰빙 간의 상관행렬($N=273$)

변인	회피 동기	복수 동기	원한 동기	부정 정서	긍정 정서	삶의 만족	주관적 행복	주관적 웰빙	<i>M</i>	<i>SD</i>
회피 동기				.15*	-.19**	-.11	-.30***	-.23***		
복수 동기	.65***			.29***	-.12*	-.10	-.33***	-.26***		
원한 동기	.95***	.86***		.22***	-.18**	-.12*	-.34***	-.27***		
이성과의 스트레스	.17**	.29***	.24***	.16*	-.14*	-.04	-.18**	-.16***	8.56	3.58
교수와의 스트레스	.31**	.38***	.37***	.21***	-.13*	-.15*	-.16*	-.21***	10.62	3.54
가족과의 스트레스	.25***	.39***	.33**	.33***	-.24***	-.19**	-.32***	-.34***	10.53	3.69
친구와의 스트레스	.27***	.42***	.36***	.27***	-.22***	-.10	-.25***	-.26***	6.52	2.47
대인관계 스트레스	.32***	.47***	.41***	.31***	-.23***	-.16**	-.29***	-.31***	36.23	10.36
부와의 갈등	.20***	.34***	.28***	.27***	-.38***	-.30***	-.48***	-.45***	26.67	7.59
모와의 갈등	.16**	.32***	.24***	.35***	-.38***	-.30***	-.44***	-.47***	26.54	7.44
부모와의 갈등	.19***	.35***	.27***	.33***	-.40***	-.32***	-.49***	-.49***	53.21	14.25
<i>M</i>	14.47	7.92	22.39	13.72	19.47	21.62	19.70	47.07		
<i>SD</i>	6.19	3.81	9.13	4.70	4.38	6.06	4.45	15.15		

* $p<.05$, ** $p<.01$, *** $p<.001$.

계가 있었다, $r=-.49, p<.001$.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갈등 모두가 모든 주관적 웰빙 하위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원한 동기가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원한 동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인관계 스트레스(A)가 주관적 웰빙(C)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원한 동기(B)가 주관적 웰빙(C)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며, 독립적으로 A와 B의 교차 항도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A와 B의 상관이 유의하였기 때문에 중재라기보다는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이를 검증하였다.

먼저 대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원한 동기가 매개효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였다(표 2). 회귀분석에서 원한 동기

가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주관적 웰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스트레스(A → C)의 설명량보다 A₁, B → C에서 A의 추가 설명량이 4.8%로 줄었고 원한 동기(B)의 추가 설명력도 유의하였다, $\beta=-.17, p<.01$. A₁, B → C에서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설명량이 줄어들었어도 유의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주관적 웰빙 사이에서 원한 동기가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Baron & Kenny, 1986).

부모와의 갈등과 원한 동기가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갈등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도 원한 동기가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지도 검증하고자 하였다(표 3). 부모와의 갈등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원한 동기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며, 독립적으로 부모와

표 2.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주관적 웰빙에 대한 원한 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R ²	ΔR ²	β
대인관계 스트레스(A ₁)	원한 동기(B)	.170		.41***
대인관계 스트레스(A ₁)	주관적 웰빙(C)	.096		-.31***
대인관계 스트레스(A ₁) 원한 동기(B)	주관적 웰빙(C)	.120	.048 .024	-.24*** -.17**

p<.01, *p<.001.

표 3. 부모와의 갈등과 주관적 웰빙에 대한 원한 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R ²	ΔR ²	β
부모와의 갈등(A ₂)	원한 동기(B)	.075		.28***
부모와의 갈등(A ₂)	주관적 웰빙(C)	.237		-.49***
부모와의 갈등(A ₂) 원한 동기(B)	주관적 웰빙(C)	.256	.184 .019	-.45*** -.15**

p<.01, *p<.001.

의 갈등과 원한 동기의 교차 항도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부모와의 갈등과 원한 동기의 상관이 유의하였기 때문에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원한 동기는 대학생이 경험한 부모와의 갈등과 주관적 웰빙 사이에서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갈등($A_2 \rightarrow C$)의 설명량보다 $A_2, B \rightarrow C$ 에서 A의 추가 설명량이 5.3%로 줄었고 원한 동기(B)의 추가 설명력도 유의하였다, $\beta = -.15, p < .01$. 대학생의 부모와의 갈등과 주관적 웰빙 사이에서도 원한 동기가 완전매개가 아닌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경험한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부모와의 갈등과 주관적 웰빙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고, 그 관계에서 원한 동기가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먼저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부모와의 갈등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전반적인 대인관계 스트레스보다 부모와의 갈등이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과 더 상관이 있었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주관적 웰빙과 약 10%의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부모와의 갈등은 24%정도의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보다 주관적 웰빙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대학생의 경우 다른 사람 중에서도 가족,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박경(2003)의 연구에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가 우울의 변량을 거의 30%가량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주관적 웰빙의 변량을 그 만큼 설명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박경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주관적 웰빙보다는 심리적 웰빙과 더 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단일 연구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에서 재검증해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와의 갈등이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설명력이 강했던 것은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박영신, 김의철, 2000)나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 부모와 자애 및 자녀의 효를 중요시하는 문화의 특성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수행된 연구들과의 비교해 보거나 비교문화적 연구를 통해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와의 갈등보다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원한 동기와 더 많은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다. 부모와의 갈등은 원한 동기와 약 7%의 변량을 공유하고 있는데 반해, 대인관계 스트레스와는 약 17%의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와는 갈등이 있어도 원한 동기를 가지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부모와의 갈등은 외상 경험으로 남을 수 있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 원한을 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 연구 결과도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특히 낳고 기른 부모와의 갈등이 생기더라도 자녀가 부모에 원한 동기를 갖게 되는 일은 적다는 것을 방증한다.

원한 동기는 주관적 웰빙과 부적 상관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과는 공유하는 변량이

적었다. 이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여러 생활 여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미래의 삶을 위해 준비하면서 현재의 삶을 어느 정도 희생시키고 있는 대학생에게는 경제적 여건이나 생활환경 등이 열악할 수 있다. 원한 동기가 정서적 결과를 낼 수 있어 부정 정서나 긍정 정서와 상관이 있고, 정서적 차원이 강한 주관적 행복, 즉 행복감과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원한 동기는 부정 정서와 5%가량만 변량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정 정서에 전반적인 주관적 웰빙과 상관이 있는 정서인 슬픔이나 죄의식 등이 포함되어 있고 증오감과 같은 원한의 핵심 정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주관적 웰빙과 관련 있는 부정 정서와 원한 동기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부모와의 갈등을 원한 동기가 매개하여 주관적 웰빙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는 것(박경, 2003; Horowitz et al., 1988)과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대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갈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박영신, 김의철, 2004), 원한 동기가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부모와의 갈등과 주관적 웰빙을 완전 매개하지는 못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매개하고 있었다. 또한 완전 매개가 아닌 부분 매개로 나타난 것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부모와의 갈등이 상대의 부당한 처사나 대우 때문이 아닌 자신의 잘못에 의해 생긴 것일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논리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와의 갈등과 원한 동기의 상관 수준이 강하

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도 지지된다. 여하튼 본 연구의 결과는 대인관계에서 경험하거나 부모와 갈등이 있는 대학생들이 마음속에 원한 동기를 가지게 되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원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한을 풀고 용서를 하는 과정을 가진다면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거나 부모와 갈등이 있는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찍이 오영희(1995)는 한국인의 한의 정서를 강조하면서 한국인의 한을 용서로 치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한(恨)과 원(怨)에는 차이가 있지만, 원의 경우 한 개인의 웰빙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이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김광수(1999)는 용서를 “조건 없이 복수를 철회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로 표현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로 상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 복수를 철회하여 복수나 회피 동기의 무거운 짐을 자신에게서 내려놓은 효과가 더 큰 것이 아닐까 한다.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용서 프로그램이 그들의 분노, 불안, 우울 등과 같은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김희영, 김정희, 이연숙, 2004)을 보아도 원한 동기를 가지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웰빙에 어떻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속에 원한이 생기고 그에 따른 분노, 증오심, 복수심, 절망감 및 수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손운산, 2008). 박종효(2006)는 이런 반응들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거나 억압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자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Worthington(2006)은 원한의 감정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상처 입게 된 것을 재차 떠올리는 반추 반응에 의해 증폭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 자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희승(1994, 오영희, 1995에서 재인용)도 원한을 “원통하고 한이 되는 생각”으로 정의하며 인지적 특성이 강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 정서를 유발하고 주관적 웰빙을 위협하는 원한 감정의 수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인지적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정서적 마음챙김이 개인이 자신의 원한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여 인지적 정서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신아영, 김정호, 김미리혜, 2010).

용서하지 않거나 회피동기를 가지는 것이 순기능으로 작용하거나 용서가 대인관계에서 피해를 지속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이은혜, 이초롱, 현명호, 2009).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지만 본 연구에서 다른 원한 동기의 하위 개념인 회피동기에 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용서에 관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며 연구들이 수행되고 개념화되었지만, 원한은 상대적으로 덜 개념화되었다. 원한을 단순히 용서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는 없을 뿐 더러,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증과恨의 개념도 다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상태나 원과 한의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에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McCullough(2000)의 견해를 기반으로 원한을 동기 개념에서 회피동기와 복수동기를 가진 상태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지만, 이런 조작적 정의가 사회과학적으로 정밀한 것은 아님

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원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수하거나 회피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수나 회피 동기가 용서의 선행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과정에서의 복수나 회피 동기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복수의 하위 개념이나 원한의 문화심리학적 비교, 그리고 외상과 복수 동기 및 용서의 시간적 전후 관계에 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광수 (1999).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호 (2007).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동기상태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 325-345.
- 김정호, 은희진 (2010). 성격의 웰빙인지와 웰빙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 673-685.
- 김희영, 김정희, 이연숙 (2004). 용서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용서 정도와 분노,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산형 집단상담과 집중형 집단상담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 347-366.
- 두산동아편집부 (2008).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 박경 (2003).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가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581-593.
- 박경 (2010).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상위인지와 마음챙김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 617-634.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 - 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38, 109-147.
- 박영신, 김의철 (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87-115.
- 박종효 (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301-321.
- 박종효 (2006). 용서 심리이론과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개관연구. 인간발달연구, 13, 117-134.
- 박준호 (2009).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반복생각과 자기 노출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 125-145.
- 서경현, 이경순 (2010).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사회 비교 및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 327-343.
- 손운산 (2008). 용서와 치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신아영, 김정호, 김미리혜 (2010). 정서 마음챙김이 여자 대학생의 정서인식의 명확성, 인지적 정서 조절과 스트레스 및 웰빙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 635-652.
- 오영희 (1995). 용서를 통한 한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 70-94.
- 오영희 (2004). 대학생의 부모-자녀 갈등경험, 용서, 정신건강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 59-77.
- 오영희 (2006). 한국인의 상처와 용서에 대한 조사. 교육심리연구, 20, 467-486.
- 이경순 (2002). 용서: 현상학적 접근. 정신간호학회지, 11, 388-397.
- 이경순 (2008). 용서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 237-252.
- 이은혜, 이초롱, 현명호 (2009). 데이트 폭력 관계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서 용서: 투자모델에 대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 385-403.
- 전경규, 김교현, 이준석 (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 316-335.
- 정성진 (2011). 용서과정 척도 개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명환,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 Arnold, J. C. (1999). *The lost art of forgiving: Stories of healing from the cancer of bitterness*. Farmington: Plough Publishing House.
- Brown, G. W., & Harris, T. O. (1989). *Life events and illness*. London: Guilford.
- Buscaglia, L. (1984). *Loving Each Other: The Challenge of Human Relationships*. New York, NY: Fawcett.
- Coyne, J. C. (1999). Thinking interactionally about depression: A Radical restatement. In T. Joiner & J. C. Coyne (Eds.) *The interactional nature of depression: Advances in interpersonal approaches* (pp. 365 - 39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Suh, E.,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ohrenwend, B. S., & Dohrenwend, B. P. (1974). *Stressful life events: Their nature and effects*. New York: Wiley.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Enright, R. D. (2004). 용서치유 [*Forgiveness is a choice*]. (채규만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1에 출판).
-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2002). *Helping Clients Forgiv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D.,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1). The moral development of forgiveness. In W. Kurtines & J. Gerwitz

-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Vol. 1; pp. 123-15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ño, G., Villaseñ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 Joiner, T. E., Jr., & Metalsky, G. I. (1995). A prospective test of an integrative interpersonal theory of depression: A naturalistic study of college roommate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9*, 778-788.
- Kessler, R. C., & Magee, W. J. (1993). Childhood adversities and adult depression: basic patterns of association in a U.S. national survey. *Psychological Medicine, 23*, 679-690.
- Laursen, B., Cy, K. C., & Collins, W. A. (1998). Reconsidering changes in parent-child conflict across adolescence: A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69*(3), 817-832.
- Lynch, J. (1979). *The Broken Heart: The Medical Consequences of Loneliness*. New York, NY: Basic Book.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McCullough, M. E. (2000). Forgiveness as human strength: Theory, measurement, and links to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43-55.
-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E. L., Jr., Brown, S. W., & Hight, T. L.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Jr., E. L., Brown, S. W., & Hight, T. L.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 Ng, W., Diener, E., Aurora, R., Harter, J. (2009). Affluence, feelings of stress, and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94*, 257-271.
- Palamattathil, G. V. (2002). The impact of integrated forgiveness intervention in enhanc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recently divorced adul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B, 62*, 4799.
- Powell, B. (1987). *Good Relationships Are Good Medicine*. Emmaus, PA: Rodale Press.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Psychology, 52*, 141-166.
- Thompson, L. Y., & Snyder, C. R. (2003). Measuring forgiveness.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pp. 301-31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orthington, E. L., Jr. (2006). 용서와 화해 [*Forgiving and reconciling: Bridges to wholeness and hope*]. (윤중석 역). 서울: IVP. (원전은 2003에 출판)
- Zubin J., & Spring B. (1977). Vulnerability: A new view of schizophren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6*, 103-124.

원고접수일: 2011년 7월 4일

게재결정일: 2011년 8월 24일

Interpersonal Stresses, Conflicts with Par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Resentment Motivation

Kyoung-Soon Lee Kyung-Hyun Suh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interpersonal stresses and conflicts with parents are related to subjective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and examined mediating effects of resentment motivation between these relationships. The participants were 273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whose ages ranged from 17 to 41. The psychological tests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d the following: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Negative Parent-Child Conflict Scale, TRIM (Transgression 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Scal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Emotion Frequency Test, and Subjective Happiness Scale. The correlational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interpersonal stresses and conflicts with parent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and conflicts with parents accounted more variance of subjective well-being than interpersonal stresses did. And interpersonal stresses and conflicts with parent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sentment motivation, and interpersonal stresses shared more variance with resentment motivation than conflicts with parents did. In addition, resentment motivation was also negatively correl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Resentment motivation was a mediating variable of interpersonal stresses/conflicts with par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It partially mediated these relationships. This result suggests that college students bitterly resent being maltreated by parents or having stresses in interpersonal relation may have lower subjective well-being. It was interpreted with previous studies and the concept of resentment, and discussed based on the perspective of forgiveness.

Keywords: Interpersonal stresses, conflicts with parents, resentment, subjective well-being